



방송



사심 인터뷰

임광기

국회방송 방송국장

주요약력

1961년생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SBS 정치부·사회부·경제부 기자

SBS 뉴미디어부장, 선거방송기획단장, 논설위원역임

32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 이가 있다. 지난 7월 국회방송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임명된 임광기 신임 방송국장. 임 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공공채널인 국회방송의 책임자로 선임됐다. 임 국장은 "그동안 언론 현장에서 갖고 뒀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오롯이 국회방송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한 시간 남짓 이어진 그와의 인터뷰에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 없이 변화를 꾀하려는 의욕 넘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훗날 '임광기가 무엇을 해 놓았다'가 아니라 '국회방송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그는 "국회방송이 국회와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먼저 SBS에서 오랜 기간 기자와 논설위원으로 일하셨는데, 새로운 조직에서 중책을 맡게 되신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1987년부터 언론계에 몸담은 지 올해로 벌써 만 32년이 되었네요. 그 기간 내내 기자 일만 해오다 뜻밖의 기회로 제가 국회방송의 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이나 지금의 자리나 큰 틀에서는 '언론'이라는 같은 업종이지만 민간조직과 공공조직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맡은 일도 전에는 보도, 논평이라는 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전체를 봐야 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훨씬 무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해외로 휴가를 다녀오다 입국하면서 세관신고서의 직업란에 그동안 늘 해왔던 대로 무심코 '기자'라고 작성을 했다가 공무원이라고 얼른 수정을 했습니다. (웃음)

새로운 도전으로서 국회방송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다양한 부서에서 취재와 보도를 했고 뉴미디어, 선거방송 등을 총괄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분야의 경험을 했지만 회사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경영을 맡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방송의 방송국장은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공채널인 국회방송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상파에서 근무했던 저로서는 국회방송을 시청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보태진다면 국회방송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자신감과 사명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전 직장에서도 정년이 아직 2년 정도 남아있어서 큰 욕심은 내지 않고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도전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를 선발해주셨습니다.

예전부터 국회방송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계셨나요?

저는 정치부 기사를 하며 온 종계도 여당과 야당, 청와대를 모두 출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방송도 자연스럽게 큰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왔습니다. 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한다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생각도 해보았지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그동안 밖에서 보던 국회방송과 안에서 보는 국회방송은 많이 달랐습니다. 현실의 벽도 발견했지요. 반대로 발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은 자체 수입이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다 보니 예산과 인력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민간조직과 달리 치열한 경쟁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 구성원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동기 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짧은 기간이지만 간파하게 됐습니다. 또 한 편으로는 지난 5월로 개국한 지 15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날의 국회방송의 위상을 이뤄낸 구성원 모두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송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종합예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의 눈에는 기자와 출연자들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방송되기까지는 기획, 연출에서부터 촬영, 조명, CG 등 수많은 땀과 정성이 모여야 합니다. 어느 한

군데서라도 균열이 일어나면 프로그램은 전체가 망가지게 되지요. 민간조직의 장점(창의성, 도전정신, 추진력 등)과 공공조직의 장점(책임감, 계획성, 연속성 등)을 살리고 서로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제가 그 역할의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 7월 취임 후 국회방송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일을?

취임 초기에는 밤에 자다가 깨면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딱히 무슨 걱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막연한 무게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두 달이 넘었습니다. 짧은 기간인데도 어찌 보면 2년이 흐른 기분도 듭니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업무 파악이었습니다. 보고나 서류를 통해서 파악하는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의 우선순위, 그리고 조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작은 조직처럼 보이지만 국회방송은 전 직원이 170여명에 이릅니다. 공무원인 일반직과 공무원, 프리랜서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에 걸쳐 1대1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제 집무실에서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다 보니, 기술적인 부분 등 잘 몰랐던 업무도 알게 되는 등 전체 조직의 업무에 대해 굉장히 디테일하고, 입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 개선 점’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진솔하게 대답하고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흠어져 있던 퍼즐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직원들을 익히는 데도, 국회방송의 현안 파악에도 큰 도움이 되어 스스로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각 파트와 점심, 저녁을 함께하며 친해지고 있는데, 중계팀, 분장팀, 아카이브팀 등을 시작으로 직원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웃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국회방송의 변화로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국회방송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했습니다. 부문별로 당장 해야 할 일,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조직이다 보니 필요하지만 당장 시작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벽만 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시작해야 합니다. 큰 힘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가시적인 성

과를 빨리 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에 먼저 국회방송 로고(CI)와 함께 비주얼적인 부분인 자막, CG 등의 개선작업을 시작했고 더 나아가 스튜디오 세트, 조명 등 기술적인 부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장 보도 부분에서도 변화의 필요가 절실해 보도 총괄 담당자를 전문직으로 채용해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국회방송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채널, 다시 말해 국민들이 찾아보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의 국회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입니다. 국회방송은 공공채널이기 때문에 다른 채널처럼 시청률을 지향하는 방송국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시청자, 더 나아가 국민에게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 만든 프로그램이어도 그 빛을 발휘하기 어렵지요. 의미와 재미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재미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 의미가 훼손될 수 있고 국회방송이라는 정체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와 재미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게 하느냐가 프로그램 성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목할 국회방송의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신다면?

최근, ‘최양락의 민심탐방 소통방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개그맨 최양락이 재래시장을 돌며 국회에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데 재미와 의미가 함께 녹아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국회방송은 ‘국회를 국민의 안방으로’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려운 법률을 기자와 변호사들이 패널로 나와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줍니다. 매우 실용적이면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합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여야를 넘어 서로 칭찬함으로써 상생국회의 분위기를 조성해나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부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당 중심으로만 단편
적으로 보도됐던 국회뉴스를 보다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변
화를 주어 정보와 재미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국장 임명부터 새롭게 후보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되었는데, 진행 절차와 제도에 대해 짧 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방송이 올해 15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방송
국장은 국회의장, 국회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내정을 통
해 임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방송의 전문성과 안정화
를 위해 선발 방식을 바꾸는 데 합의가 이뤄져 외부인으로
구성된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8명이 추천되었고, 공모에서 16명
이 지원을 하여 서류심사와 발표(PT), 면접 등 공정한 심사
를 통해 2명이 추천되어 최종으로 국회인사위원회에서 의
결을 통해 합격자 1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
다. 제가 첫 사례로 임기도 기본 3년에 2년 연장 가능한 조
건으로 보장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국회방송의 앞날만을 염두에 두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
다. 국회방송의 첫 간부회의에서도 “저는 누구에게 잘 보
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 자리는 승진할 직책도 아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국회방송의 주인이고, 저는 잠시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그동안 여러분의 힘만으로 어려웠던 일
을 제가 떠맡아 일하고자 한다. 그러니 제가 하루빨리 업무
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선발되기까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30년 만에 써보는 것이고 직무계획서는 처음 대하는 것이
었습니다. 양식도 생소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와 마찬가지로 글의 일종이
라고 생각하고, 제 스타일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면접에서
한 심사위원이 “상당히 독특하다”면서 “‘공감’과 ‘설득력’
이 높았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면접 현장에서는 방송
을 진행하면서 쌓았던 경험대로 쉽고 차분하게 제 소신을
말씀드렸던 것이 심사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
고, 발표는 평소 제가 학교나 기업, 기관에서 강의를 많이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국회방송의 방송기술 현황과 개선점은?

솔직히 평소에 기술 분야는 관심이 적었던 부분입니다. 국
장으로 부임한 뒤 관련 공부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국
회방송의 현황을 파악해보니 열악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그런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궁극적으로 국
회 안에서 이뤄지는 각종 회의의 중계화면은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국회방송이 독점 촬영해 이를 지상파나 종
편 같은 방송국에 서비스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의 원활
한 진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각 방송사에 대한 서비스 차원
에서도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진국 대
부분의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방송의 기술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
다. 방송장비와 촬영기술, 조명, 음향 등 모든 부문에서 방
송국들이 받아서 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
이죠. 이 모든 것에 예산이 필요하기에 당장 실시는 어렵더
라도 꼭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업무로 항상 바쁘실 텐데, 여가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집이 일산이기에 호수공원을 즐겨 걷고 있습니다. 주말에
는 등산을 합니다. 아내와 둘이 많이 가는데 가까이는 일산
의 고봉산이나 파주 심학산, 인천 계양산을 가고 북한산도
자주 가곤 합니다. 얼마 전 태풍이 지나간 뒤 계양산을 오
르는데 강풍으로 나무가 똑똑 부러져있더군요. 그걸 보면
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큰 나무들이 바람에



못 버티고 쓰러지는데 왜 약해 보이는 작은 나무나 강아지 풀은 강풍을 버텼을까. 부러진 나무들은 가지와 잎이 많은 것들이었어요. 가진 것이 많으면 잃을 것도 많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보는 순간이었어요.

‘방송과기술 구독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은 언어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TV에 나오지 않는,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모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냅니다. 특히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기술인들의 노력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PD, 기자, 출연자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기술 분야에서 뒷받침 해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분야에서는 한 사람이 잠깐 잘못하거나 실수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지만 기술 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을 품질로 본다면 100에서 90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에서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방송에서 일하시는 기술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시어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원래 계획은 퇴직하면 일에서 떠나 재미있게, 건강하게 살

고 싶다는 목표를 뒀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추가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도 하자고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재미, 건강, 의미... 이렇게 3가지를 목표로 삼았지요. 건강과 재미는 기본인데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봉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지는 것 같고, 그냥 평범하게 남을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배워서 할 수는 없고 내가 나름 잘 아는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몸담아 왔던 언론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터득했던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언론 관련 강의를 학교에서 해왔고, 언론을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에 관한 미디어 트레이닝 강의를 기관, 기업 등에서 해왔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스토리텔링 강의를 해왔었는데, 이를 재능기부로 사회에 기여를 하면 보람도 생길 것 같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잠시 미뤄졌지만 제가 언젠가는 일을 마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업무 때문에 외부 강의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얼마 전 국회 내에서 미디어 담당자들에게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에서도 요청이 와 신입 사무관 교육생들에게 언론 관련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의 힘이 닿는 한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방송 소개

국회방송(國會放送, NATV : National Assembly Television)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방송으로 국회의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 정보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며, 국회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등 주요 회의를 편집·가감 없이 생중계를 기본으로 한다. 그 외 각종 보도·시사 프로그램과 입법정보 프로그램, 정치, 역사, 문화, 교양에 이르기까지 24시간 방송되고 있다.

소속 부서로는 기획편성과, 방송제작과, 방송기술과가 있으며, 방송국장이 총괄 운영을 맡아 운영한다. 국회의정관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5, 6층의 사무실과 주/부조정실, 스튜디오에서 방송 기획과 제작, 송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공방송
국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열린방송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국민방송

편성원칙

사실성의 원칙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정치적 중립성 및 균형성의 원칙	공공성과 다양성의 원칙
국회의 회의중계는 무편집, 무해설로 방송	방송의 기획, 편성 및 제작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함	특정교섭단체 또는 특정 의원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 유지	입법부의 공공적 역할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주요 연혁

2013.01	HD 방송 실시
2012.08	문화재청 업무협약 체결
2010.11	24시간 종일 방송 실시
2008.11	국회방송 의정관 이전
2004.05	국회방송 개국
2003.12 09	방송위원회 공공채널 지정 국회방송 전용채널 확보의 건 승인
2002.11	국회방송 전용채널 확보, 운용방안 연구팀(TFT) 운영
1998.10	제19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국민 생중계 실시
1995.05	국회방송시설 준공식 거행 및 국회 구내 시험방송
1991.12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정
1988.06	국회의사중계 방송을 위해 국회법에 근거 마련

국회방송 CI

국회의사당 건물을 모티브로 하는 국회커뮤니케이션마크와 부드럽고 유연한 형상의 글자를 조합하여 시청자와 소통하는 열린 국회방송의 이미지를 시각화



국회방송 제작 스튜디오

